자작 자동차대회 오는 10일 팡파르

새만금 군산 경주장서 186개 팀 역량 겨루기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로 경연을 펼치는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 군산 자동차 경주장에서 개최된다.

지난 2007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는 4회 대회부터 올해 11회까지 8번의 대회를 군산에서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 대회는 102개 대학에서 186개 팀의 총 2,301명이 참가하여 3일 동안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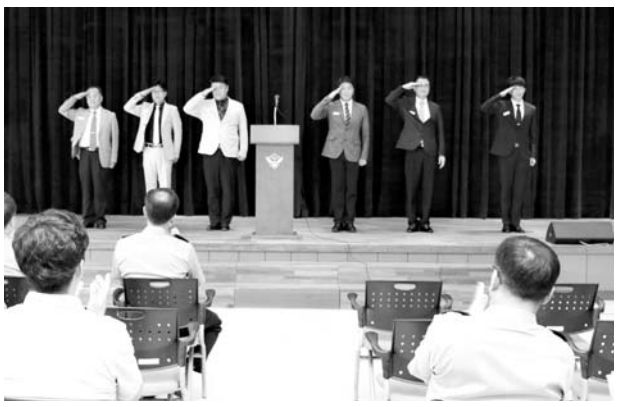
대회는 오프로드 차량인 Baja, 온로드 Formula, EV와 함께 신선한 아이디어와 독특한 디자인 차량이 출전하는 기술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가장 많은 팀이 참가하는 Baja는 올해 인근에 기존보다 큰 규모의 서킷이 새로 조성되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회 종합 우승팀(KSAE Grand Prix)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및 500만원의 상금이 제공되며 총 3,500만원 상당의 상금 및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대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관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http://jajak.ksae.org)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는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로 경연을 펼치는 대회로 대학생들에게 자동차를 직접 설계 및 제작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자동차산업의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개최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대학생들에게 최고의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군산=장 현 기자

"전입을 신고 합니다"

군산해경, 특별한 환영식 행사 개최



군산해양경찰청에 전입된 6명이 7일 전입을 신고하고 있다.

해양경찰 외청 독립 후 특별한 전입 신고식이 군산해경에서 열렸다.

군산해양경찰서에서는 "7일 오전 9시 경찰서 내근 근무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경찰청 전입자 6명의 전입 환영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입 신고식은 경찰관이 지휘관에게 신고로서 전입을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본서 근무자 총원이 참석한 이례적인 환영식 행사였다.

행사는 전입 경찰관의 소개와 소감, 환영인사 순으로 진행됐고 다시 만난 동료와 재회의 기쁨, 새로 맞는 동료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채광철 군산해경서장은 "20년 이상 경찰청에 재직하고 해양경찰청에 새둥지를 마련한 전입 경찰관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하는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경찰청에서 다진 노하우와 업무능력이 바다와 만나 서로 적응하고 통합되어 가는 시너지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년 11월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산하 소속기관으로 편입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해양경찰 정보·수사 인력의 상당수가 경찰청으로 전출됐다.

그 후 해양경찰청이 다시 독립 외청(外廳)으로 개청되면서 앞서 전출됐던 경찰관 일부와 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경찰관이 해양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에 군산해경에 전입자는 모두 6명으로 ▲ 경위 조중석(前나운지구대, 現새만금 파출소) ▲ 경위 임대환(前나운지구대, 現보안계장) ▲ 경위 박종배(前수사2과, 現정보과) ▲ 경위 김래규(前중앙파출소, 現해망파출소) ▲ 경위 허경석(前경비교통과, 現해망파출소) ▲ 순경 김영수(前서울청 기동대, 現비응파출소)이며, 군산해경 소속기관으로 인사 발령됐다. /군산=장 현 기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원광대 김용길·최영란 교수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사진 왼쪽), 최영란(사진 오른쪽) 교수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세법 및 관세 관련 법률안의 방향 검토 등 세제 관련 사항에 관한 입법자문을 위해 경영단체와 노동 관련 단체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과목별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세법 개정법률안을 만들도록 자문, 심의하고 있다.

특히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올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 등에 역점을 둠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 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 과세 강화와 서민 및 중산층에 세부담이 줄도록 방향을 정하고, 세입기반 확충을 추진하여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국민성장을 꾀하도록 2017년도 세법 개정안을 심의, 완료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을 겸하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최영란 교수와 함께 앞으로 1년 동안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2일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FTA시대를 맞이해 관세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물품의 국경조치, 국토보안에도 정부가 관심을 더욱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는 독일 라이프찌히에서 개최된 2017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돌아온 선수들에게 7일 메달 전수와 포상금을 수여했다.

'금의환향' 익산 펜싱팀 메달 전수

독일 세계선수권대회서 은메달 · 국대 선발 등 지역 빛내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독일 라이프찌히에서 개최된 2017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돌아온 선수들에게 7일 메달 전수와 포상금을 수여했다.

김지연·황선아(익산시청) 선수는 서지연·윤지수(이상 안산시청) 선수와 팀을 이루어 4강전에서 일본을 45-32로 제압하고 여자사브르 종목 최초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전수식에는 지난 7월 31일부터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된 제57회 대통령배 전국남·여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대회에 출전하여 단체전 남·녀 1위 및 개인전 남·녀 2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7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영광을 안고 돌아온 펜싱팀 선수들이 함께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선수들의 맏언니 김지연 선수에게 "다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반드시 우승하여 세계대회 그랜드슬램을 꼭 달성하기를 바란다"는 격려를 했다. 또 대통령배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 획득과 함께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 모두에게 "그간의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맺은 만큼 더욱 정진하여 전국 최강실업팀의 명성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서부보훈청 보비스 선포 10주년 기념식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은 보비스 선포 10주년 및 국가보훈처 창설 56주년 기념식을 최근 전북서부보훈지청 황금재실에서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이동보훈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보훈처 정책브랜드 '보비스(Bohun Visiting Service) 선포' 제10주년과 처 창설 56주년을 맞아 복지인력의 사기진작과 처 창설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련했으며 복지인력 등 직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우수보훈복지인력에 대한 국가보훈처장 표창(김연후, 문혜정), 지방청장 표창(김란수, 강우영), 지청장 표창(노경임, 노향자, 문남순, 박정민, 최양숙)을 수여했고, 보훈섬김이 우수활동사례 발표, 보비스 선포 10주년 기념 케이크 컷팅식을 실시하고 치매예방과 개인정보 교육, 청렴 결의 대회 등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보비스는 국가보훈처 정책브랜드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보훈섬김이 1,300여명이 보훈대상자 12,300여명의 집을 1주일에 1~3회씩 찾아 고령이나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취사, 말벗, 건강체크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는 보훈섬김이 34명이 350여명의 보훈대상자를 돌보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월명동, 골목골목 찾아가는 복지상담 박차

군산시 월명동은 지난달 해신동과 중앙동을 포함한 권역형(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맞춤형복지팀이 구축된 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골목골목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월명동 맞춤형복지팀은 최근 지역주민에 의해 발굴된 독거노인 김 모 할아버지를 방문하여 장기간 가족관계단절로 혼자서 생활하면서 해결이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어 즉시 사회복지관 도시락 지원, 이웃안부 확인 협조, 여름이불 등을 지원했다.

또한 8월부터는 사랑의 이동목욕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안전한 돌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맞춤형복지서비스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및 인적안전망 구축·운영,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등 대상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월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중엽 민간위원장은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지역을 생각하고 민·관이 서로가 동행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해 행복한 동네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